



맛지마니까야 전재성 역주

부처님의 대화 가운데 중간크기의 설법을 모아 놓은 필리아 대장경 '맛지마니까야' (한역 중앙합경에 해당의 한글 번역본이 나왔다. 한국...



“화날땀 열을 세라”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인생을 살다보면 분노와 근심, 걱정과 같은 격한 감정들이 자주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스리랑카 출신으로 1952년부터 회교국인 말레이시아에 정착, 불교를 융성시킨 담마난다 스님(사진은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도 더 화가 난다면 백까지 세라'는 말로 요약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1967년 '왜 근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초판이 출판된 이래 큰 인기를 얻어 몇 차례 개정판이 나왔다. 또한 이 책은 말레이시아의 큰 스님으로...

1부에서는 두려움과 근심의 여러 유형을 나열해 그 원인을 밝히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인생의 보편적 문제인 괴로움(苦)과 인생의 본질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해 설명했다. 탐욕, 혐오, 무명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2부를 펼쳐보면 도움이 될 듯하다. 마지막 3부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올해는 담마난다 스님의 말레이시아 정착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값 8천9백원.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10 books including '화(Anger)', '신묘장구대다라니경해', etc.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1737-0695 / 팩스 : 021737-0696

100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델을...

“여기 100가지 죽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수필가 맹난자 씨가 동서양의 예술가 철학자 정치인 등 100여 명의 죽음을 다룬 책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출판사)를 펴냈다. 이 책은 지은이가 1998년 펴낸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에 실린 글 중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려 뽑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 장(章)으로 나누어 묶은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지은이는 ‘죽음을 철학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여행’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번 책에서 비중을 둔 부분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이다. 목련존자는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중국 당나라의 혜가 스님도 ‘빛을 갖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죽음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전생과 연결된 문제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과 삶 맹난자

지은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25 피난 중 산골 뒷방에서 본 여동생의 사신과 10년 뒤 중학생이던 남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고 나서다. 이후 20여 년 간 죽음에 관한 기록이...

“처음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를 쓸 때는 신념을 가지고 기계이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죽음이란 문제를 체감하는 나이가 되자 형벌 같은 삶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한다.

청나라 황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되었던 푸이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 강화도에 유배돼 구차하게 살았던 공민왕의 삶을 재해석할 삼사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등의 수필집을 펴낸 그는 외국의 대문호들과 음악가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경험을 <묘지기행>이란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중아합경’ 세계 두번째 완역

맛지마니까야는 중간이라는 뜻의 ‘맛지마(Majjhima)’와 모음집을 뜻하는 ‘니까야(Nikaya)’의 합성어로, 152개의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쌍웃다니까야’가 역사적인 사건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면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와 수행체계 중심의 담론으로 집성한 것이다. 때문에 초기불교의 교리체계를 승단적 차원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교리담문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경전은 부처님 열반 후 제자 500명이 칠엽굴에 모여 가르침을 복원하는 제1결집에서 성립했다. 이후 암송되어 구전으로 전래오다 부처님 열반 이후 500년 경 스...

일상어 사용·주석 달아 이해 도와 역자 “1년내 5권 펴낼 계획” 리랑카의 밧타가마니왕 때 기록했다. 이번에 출간된 맛지마니까야 한역 1권은 국제불교리성전학회 원전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붓다교의 주석서 빠판짜수다니(跋論疏)를 비롯해 갈 노이만의 독일어역과 쿠르트슈미트의 독일어역 그리고 호오녀 여사의 영역 등을 참고했다. 어려운 불교용어를 배제하고 현대의 일상어로 번역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팔만대장경 및 동국역경원 간행 한글대장경의...

다. 또한 “그동안 한역 경전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르침 자체가 왜곡되거나 난해해진 경우가 많다”며 “원전을 직역함으로써 가르침의 원형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앞으로 1년여 걸쳐 맛지마니까야를 30권씩 나눠 전체 5권으로 펴낼 예정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전 회장은 독일 본 대학에서 인도학과 티베트학을 연구했으며, 97년 한국불교리성전학회를 설립해 필리아 대장경 번역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값 3만원.

중아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경전의 제목에 주석을 붙여 표기했고, 521개의 주석을 달아 기존 번역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전재성 회장은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초기 불교의 건강하고 담담함 담론을 만날 수 있다”며 “담론이 중간 크기인 것은 당대의 사상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 전개와 섬세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무용 법현 지음



월드컵 기간 중 봉천사에서는 매일 영산재가 봉행되어 외국인들에게도 불교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법문을 몸짓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불교무용은 불교음악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불교의식 중의 하나이다. 30여 년 간 불교무용을 실현하며 이론적 노력까지 결집해 온 법현 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동국대 국악과 교수)이 불교무용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개론서 <불교무용> (운주사)을 펴냈다. 이 책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무용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에 대한 기본 춤사위와 진행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각 춤에 맞춰 사용되는 가사와 악보도 실어 놓았으며, 특히 춤의 기본동작에는 이론 설명과 함께 사진을, 가사에는 우리말 번역까지 덧붙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

바라춤 등 체계적 정리 개론서 이 책에서는 또한 의식(제)의 종류를 나열하며 그 규모에 따라 어떤 춤들이 사용되는가도 알려준다. 가령 영혼천도대 의식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재(齋)인 ‘상주권공재’ 의식에는 타주무가 없는데 반해, 영산재...



◇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몸짓인 불교무용에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의 4종류가 있다. 사진은 나비춤의 한 장면.

용의 권위하인 소린 들을일 이 없을 것 같다. 지은이는 “일단 무용과 달리 불교무용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몸짓”이라며 “끊임없는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 있는 진정한 춤사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값 1만7천원. 김주림 기자 jkrm@buddhapia.com

Advertisement for 'Mokchoaek' (목초액)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man, product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GN Co., Ltd.